부처가 내려온 그곳, 태국은 어떻게 성지가 됐나

국립중앙박물관 '태국불교' 주제 국제학술대회

8월 13일 관내 소강당서 개최
노남희, 도리천강화 도상 통한 '성지의 현지화' 조명해 '눈길'
스님들 계단 내려오는 '탁밧데보' 도리천강화, 의례 통해 재현해
"중생 곁에 온 부처님 의미 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국립중앙박물관은 8월 13일 교육관 소강당에서 '태국의 불교와 불교미술'을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노남희 학예연구사의 발표 모습.

태국 불교사와 태국 불교미술 면면을 조명한 국제학술대회가 열렸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유홍준)은 8월 13일 교육관 소강당에서 '태국의 불교와 불교미술'을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태국의 문화유산을 소개하는 특별전 '어메이징 타일랜드: 태국미술명품전'과 연계해 열린 국제학술대회에서는 태국 불교의 형성부터 불상 도상, 왕권 이념, 건축, 의례 공간에 이르는 6편의 논문이 발표됐다.

가장 눈길을 끈 것은 노남희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의 '영원에서 지상으로: 태국 불교미술의 도리천강하와 성지의 현지화'다. '도리천강하'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자신을 낳고 세상을 떠난 어머니 마야부인을 위해 하안거 3개월 동안 도리천에서 설법한 뒤, 인드라와 브라흐마의 호위를 받으며 상카시야로 내려왔다는 이야기다.

노 학예연구사는 '도리천강하'의 핵심을 부처님이 일으킨 '기적'보다 천상에 있던 부처가 중생 곁으로 돌아와 특정 장소에 현존하게 됐다는 점에서 찾았다. '부처님이 내려선 곳은 그 존재만으로 성지가 된다'는 인식이 태국에서 '도리천강하' 도상이 오랫동안 변주될 수 있던 배경이라는 게 노 학예연구사의 설명이다.

노 학예연구사는 "'중생을 위해 이 땅에 다시 내려온 부처와 그로 인한 장소의 성지화'라는 개념이 도리천강하 이야기의 가장 핵심"이라며 "인도 바깥의 지역에서 도리천강하 서사를 가장 꾸준히 활용하고 재현한 지역은 단연코 태국"이라고 강조했다.

'도리천강하'의 시각화는 드바라바티 시대(6~11세기)부터 확인된다. 현재 방콕 왓 수탓 본존불 대좌 뒤에 부착된 부조에는 도리천에서 마야부인에게 설법하는 부처님이 표현됐다. 이 부조가 '도리천강하' 도상의 첫 장이다. 이후 '도리천강하' 이야기는 다양한 유형으로 변주된다.

대표적인 것이 태국 불교미술만의 독특한 불상인 '걷는 부처'다. 수코타이 시대(13~15세기)를 대표하는 '걷는 부처' 역시 이를 재현한 불상이다. 이 시기에 오면 인드라와 브라흐마, 계단 등 주변 장치가 사라지고 부처님 존상만 독립적 예배상으로 조성하게 된다. 독립된 예배상이 된 '걷는 부처'는 더 이상 '도리천강하'라는 맥락에만 갇혀 있지 않게 됐다.

이를 대표적으로 보여준 것이 린나왕국의 불족적 신앙이다. 린나왕국에서는 걷는 부처와 불족적이 성행했고 이는 '불법이 번성할 곳에 발자국을 남기는 부처'로 해석됐다. 나아가 순회 설법이나 경행 수행을 상징하는 이미지로도 의미가 확장됐다는 게 노 학예연구사의 설명이다.

라따나꼬신 시대(18세기~현재)에 와서 '도리천강하' 이야기는 회화 매체로 확장되며 서사 구조 역시 '도리천 설법-계단을 통한 강하-상카시야 설법'의 3단 서사로 확대·정착된다. 특히 도리천강하를 그린 '프라봇(Phra Bot, 의례용 회화)'은 하안거인 '카오판사(Khao Phansa)' 기간에 사원에 걸렸는데 이는 도리천강하 이야기 속에서 부처가 도리천에 올라간 것이 하안거 기간이었다는 점과 상통한다. 이에 대해 노 학예연구사는 "하안거 기간에는 많은 신도들이 사원을 방문해 공양하고 설법을 들었으며, 이때 프라봇은 설법 내용을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19세기 중후반부터는 '탁밧데보(Tak Bat Devo)' 의례를 통해 '도리천강화'가 일어난 장소인 상카시야가 되기도 했다. '탁밧데보'는 태국 음력 11월 하현 1일, 즉 출안거(Ok Phansa) 다음날 아침에 열리는 탁발 공양 의례인데, 단순한 공양 의례가 아닌 '천상에서 부처가 하강하는 것'을 재현하는 의례다. 가장 유명한 것은 우타이타니(Uthai Thani)의 왓 상캇라따나키리(Wat Sangkat Rattanakhiri)에서 열리는 의례로, 약 400명이 넘는 스님이 수천 명의 신도들이 양옆에서 공양하는 가운데 449개의 계단을 따라 산 정상에서 내려오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노 학예연구사는 "도리천강하 이야기 속에서 부처님은 천상에 머무르지 않고 다시 이 땅에 불법을 펼치기 위해 중생들의 곁으로 돌아온 존재가 됐다"면서 "높은 산에서 줄지어 내려오는 승려들의 모습을 통해 도리천강하를 지금 이 땅에 다시 재연하고, 태국을 '상카시야'라는 성지로 만드는 모습은 태국불교가 만들어 온 창조적 역동성의 또 다른 한 장면"이라고 강조했다.



법인 스님의 **문자반야**

㊸ 입측오주(入厠五呪)

화장실에서 마음을 닦는다

入 厠 五 呪

절집에서는 화장실을 '해우소(解憂所)'라고 부른다. '근심을 내려놓는 곳'이라는 담백한 이름처럼, 해우소는 몸속의 노폐물만 내보내는 곳이 아니다. 마음에 켜켜이 쌓인 번뇌와 욕망까지 내려놓는 수행 공간이다.

불교에서는 먹고 배설하는 일을 천하거나 더러운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것은 생명을 유지하고 삶을 이어가는 자연스러운 순환이다. 그러기에 본능적인 생리 현상조차 수행으로 삼는다. 스님들은 해우소에서 마음을 가다듬으며 '입측오주(入厠五呪)'라는 다섯 가지 진언을 외운다. 몸을 비우는 순간, 마음의 번뇌까지 함께 내려놓는 것이다.

첫째는 해우소에 들어서며 외우는 입측진언(入厠眞言, 옴 하로다야 사바하)이다. 몸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동시에 마음에 쌓인 묵은 때까지 씻어내기를 발원한다. 둘째는 일을 본 뒤 국부를 씻으며 외우는 세조진언(洗條眞言, 옴 바시라 노하야 사바하)이다. 오물을 씻어내듯 마음속에 자리한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곧 삼독(三毒)의 번뇌도 말끔히 씻어내겠다는 다짐을 담고 있다.

셋째는 손을 씻으며 외우는 세수진언(洗手眞言, 옴 주가라야 사바하)이다. 손에 묻은 오염을 씻어내듯, 자신의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이 세상에 이로움이 되기를 서원한다. 넷째는 거예진언(去穢眞言, 옴 시리다 도사 사바하)이다. 몸과 주변에 남은 탁한 기운을 없애고 청정한 상태를 회복하기를 발원한다.

마지막은 정신진언(淨身眞言, 옴 수다리 수다리 수마리 수마리 수무리 사바하)이다. 몸과 마음을 깨끗이 씻은 뒤 다시 청정한 마음으로 수행에 전념하겠다는 다짐을 담고 있다.

이처럼 불교에서는 일상의 사소한 행위 하나에도 수행의 의미를 부여한다. 그 사상적 뿌리는 〈화엄경〉 '정행품(淨行品)'에 닿아 있다. 문수보살은 세수하고, 옷을 입고, 길을 걷고, 잠자리에 드는 일상의 모든 순간에 "마땅히 중생들이 ~하기를 발원한다(當願衆生)"라는 서원을 세운다. 대·소변을 볼 때에도 "마땅히 중생들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버리고 더러운 법을 지워 없애기를 발원할지니라"고 한다. 몸을 비우는 평범한 행위마저 중생을 위한 서원으로 바꾸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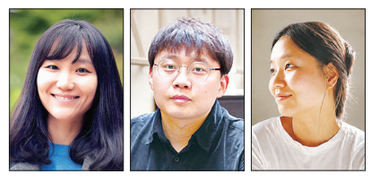
버려지는 것에서 새로운 생명을 바라보는 시선은 이현주 목사의 '똥에 대하여'에서 더욱 선명해진다.

"내 안에서 나갈 때 너는 더러웠다. 아무도 너를 만지려 하지 않았고 아무도 너를 돌아보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땅은 너를 마다하지 않고 받아서 제 가슴 깊이 묻어 두었다가 (…) 알찬 열매를 맺게 하였다. 내가 참으로 버려야 할 것은 내 몸에서 나온 똥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들어 있는 똥, 남을 미워하고 탐내고 시기하는 그 더러운 마음이었음을. 이제야 알겠구나. (…)"

〈화순 불암사 주지〉

제24회 유심상에 안희연·정용준·오은교

오는 9월 12일 시상식


안희연 정용준 오은교

설악만해사상실천선양회(이사장 권영민)는 "만해 스님의 문학적 업적을 기리고 한국문학 발전을 위해 제정된 유심상 제24회 수상자로 시 부문 안희연 시인, 소설 부문 정용준 소설가, 평론 부문 오은교 평론가를 각각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조 부문 수상자는 선정되지 않았다.

제24회 유심상 심사위원회는 안희연 시인에 대해 "말과 세계의 안전한 합일보다 그 사이의 균열을 집요하게 응시함으로써 시의 난경과 황홀을 동시에 발생시키는 미학적 성취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정용준 소설가에 대해서는 "냉소와 불신이 지배하는 동시대에 사랑과 아름다움의 가치를 새롭게 갱신해 온 작가"라고 상찬했다.

오은교 평론가에 대해서는 "인간에 대한 단단한 믿음을 통해 비평의 경계를 넓히면서 동시대 비평이 감당해야 할 새로운 감각과 사유의 영토를 확장하고 있다"고 수상의 이유를 전했다.

2003년도부터 시행해 온 유심상은 최근 2년간의 저서를 대상으로 시, 시조, 소설, 평론 부문으로 나누어 그간의 문학적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은 문학인을 수상자로 선정하고 시상한다. 수상자에게는 각 부문별로 상금 2000만원을 수여한다.

제24회 유심상 시상식은 오는 9월 12일 오후 5시 인제 동국대 만해마을 문인의집 대강당에서 열린다. 시상식에 앞서 이날 오후 3시부터 만해마을 문인의집 2층 라운지(비움)에서 제24회 유심상 수상자 간담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신중일 기자

2026팔관회보조금지원사업

2026팔관회
명상 걷기대회

2026. 9.12 토요일 오후 6시

북항친수공원 경품 추첨 및 어울림한마당

사회_ BBS 부산불교방송 조예지 아나운서

어울림 한마당 출연가수


전유진


진욱


금윤아

식전 행사


명상지도사 최인혜


불자 가수 엄재원


크로스오버 아티스트 로투라

신청 방법
2026팔관회 명상 걷기대회는 스마트폰 NFC 인증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스마트폰 소지자는 누구나 사전 및 현장 신청이 가능하며,
스마트폰이 없거나 미소지하신 분도 현장에서 별도 실물 카드를 발급받아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1. 사전 참가신청
① 참가신청 QR코드 스캔 →
② 전화신청 :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 ☎ 051)868-5455
※ 선착순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2. 현장 참가신청
- 행사 당일 현장에 설치된 참가신청 부스 방문 후 신청
- 만 14세 미만 참가자는 반드시 보호자 동반
- 당일 오후 4시부터 접수 가능
※ 선착순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경품 추첨 LG 김치냉장고, LG 스탠바이미 TV
다이슨 공기청정기, 로봇청소기 등 총 1,000만원 상당의 경품 추첨

주최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 주관 2026팔관회봉행위원회 후원 부산광역시 · 부산광역시불교연합신도회 문의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_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13, 400호(양정동, 불교회관) 051)868-5455